

JTBC 싱어게인2 “무명가수전…왜 유명가수 나오냐고?”

시즌2, 8.7% 중영 시청률이 낮지 않았지만, 화제성 떨어져 “시즌1 비해 새로운 얼굴 발굴하는 재미가 덜했다” 평가되

JTBC ‘싱어게인2’를 볼 때마다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가수 한동근, 리사, 리아, 김현성, 모세, 앤시아를 비롯해 그룹 ‘올라라세션’, ‘레인보우’ 출신 조현영 등 대중에게 익숙한 이들의 출연이 줄을 이었다. 단순히 부제가 ‘무명가수전’인데, 왜 유명가수가 나와?라고 생각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여러 기획사에 출연 문의가 잇따른다는 얘기도 들려와 ‘시즌2부터 섬의 난관에 부딪힌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었다.

“무명가수전은 중의적 의미가 있다. 진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가수뿐만 아니라 유명도와 상관없이 번호를 달고 공정하게 싸워내 이름을 찾는 것을 포함한다. 앨범을 낸 가수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예심 보면서 ‘너는 유명하니까 감점이야’라고 탈락시킬 수는 없다. 무명가수에 초점을 맞춰 ‘계속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즌3를 해도 탈레 마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프로그램을 끌어가는 힘이 될 거다.’(윤현준 CP)

특히 한동근은 2018년 음주운전 후 3년여 만에 싱어게인2로 얼굴을 드러내 논란이 일었다. 윤 CP는 “한동근씨가 지원했을 때 ‘음주운전해서 출연 안 돼요’라고 말해야 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합당한 대가를 치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원한 친구를 떨어뜨리는 게 맞는지부터 출발했다. 결국 ‘심사위원에게 맡겨보자’고 판단했다. 비판 혹은 응원하는 시청자가 있었는데 달게 받아야 하는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싱어게인은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가수

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시즌1은 시청률 10%를 넘어 막을 내렸고 톱3인 이승윤, 정홍일, 이무진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시즌2 마지막 12회는 8.7%(닐스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시청률이 낮지 않았지만, 화제성은 떨어졌다. 시즌1보다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는 재미가 덜했다”는 평도 있었다.

윤 CP는 “새로운 얼굴이 발굴되지 않았다”는 건 일정 부분 동의하기 어렵다. 싱어게인은 SBS TV 오디션 ‘K팝스타’ 엠넷 ‘슈퍼스타 K’가 아니다. 기존 가수들이 도전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아주 무명이라서 새로운 얼굴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얼굴을 찾는 걸 표방하기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걸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톱3가 소위 말해서 ‘하드캐리’ 했다. 어느 지점부터는 이 사람들이 ‘톱3가 될 거야’라고 정해져 있었고 화제성도 높았다”며 “이번 시즌은 상황 평준화되면서 누가 뛰어나게 하드캐리하지 않았지만, 제작진도 톱3를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반전 드라마를 썼다. 좋은 측면과 아쉬운 측면이 공존했다”고 설명했다.

윤 CP는 싱어게인2를 만들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마음먹었다. 시즌1이 잘 되면 시청자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져 독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시즌1을 하면서 생긴 선입견, 고집을 떨쳐버리기 위해 노력했다. 심사위원에게도 “시즌1은 잊어달라”고 부탁한 이유다. ‘시즌1 톱3가 머리 속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시즌2에서 더

다양한 사람이 빛을 볼 수 있길 바랐기 때문”이다.

가장 고민한 지점은 ‘어떻게 뽑을까?’다. 싱어게인은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과 달리 파일럿 시청자 투표 50% 반영을 제외하고 심사위원 판단에 의지했다. 윤 CP는 “시청자 투표를 섞어도 완벽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청자들이 많이 투표할수록 인기투표가 돼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는 가수들이 다음 라운드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심사위원 8명이 계속 뽑는 방식을 지속해서 시청자 판단과 배치됐다는 평도 있었는데, ‘시청자 투표를 넣는다고 바람직하냐’를 두고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톱3는 김기태, 김소연, 윤성으로 결정됐다. 채성욱 PD는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로 김소연의 4라운드 패자부활전을 꼽았다. “죽음의 조에 들어 있었다. 엄청 좋은 무대를 펼쳤는데도 패자부활전에 갔다”며 “김소연씨가 중간에 잠깐 멈췄다. 몇 초 안 됐지만 길게 느껴졌다. 가사를 까먹었는지, 감정이 울랐는지 등을 안 몰랐는데 딱 멈췄을 때 다들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이겨내고 하이트라이트를 시작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노래를 끝까지 잘 불러서 4라운드에 올라가 남달랐다”고 돌아봤다.

밴드 ‘로맨틱펀치’ 배인혁도 예상 밖 활약을 보여줬다며 “이미 유명세가 있는데 경연에 나와서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톱10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쪽 가셔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귀띔했다.

윤 CP 역시 “김소연씨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다. 패자부활전 거쳐서 올라가고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보여주는 게 싱어게인 재미”라며 “윤성씨도 파일럿에서 톱6 중에 가장 밑에 있다가 톱3까지 올라왔다. 평



소 각광 받지 못하고 20년간 음지에서 음악한 분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드라마를 쓴 김소연씨 다음으로 윤성씨 ‘창밖의 여자’ 무대에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다. 윤성이라는 사람의 드라마 시작이었다”고 덧붙였다.

“(영상 조희수) 1000만뷰를 기록한 김기태씨가 김광석(그날들) 노래 부른 무대도 좋았다. 막판에 MC 이승기씨가 코로나19에 걸려 ‘시즌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사실 태씨도 코로나19에 걸렸다. 마지막 무대 이틀 정도 앞두고 격려해제 됐다. 코로나19에 걸리면 목이 금방 돌아오지 않는다.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를 했다. 심사위원이 영랑 받으면 안 돼서 이런 상황을 모르고 평가했다. 안쓰러우면서 아쉬웠다.”

싱어게인은 심사위원 구성도 특별하다. 총 8명을 주니어·시니어로 나눠 구성했다. 시즌1 때는 아이돌인 그룹 ‘슈퍼주니어’ 규현, ‘원

더걸스’ 출신 선미, ‘위너’ 송민호가 심사하는 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았다. 이들과 가수 유희열, 이선희, 윤도현, 작사가 김이나, 듀오 ‘다비치’ 이해리는 시즌1에 이어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다. 시즌2에는 밴드 ‘YB’ 윤도현이 합류, ‘봄여름가을겨울’ 김종진 반자리를 채웠다.

“싱어게인 시작이 슈가맨이다. 슈가맨에 모시기는 조금 유명도가 떨어지는데, 노래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런 분들을 더 ‘출연시킬 프로그램은 없을까?’ 생각했다. 슈가맨이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싱어게인이다. 항상 어떻게 하면 ‘절실한 사람들의 진정성을 잘 답을까?’ 고민했다. (시즌2는) 주목도가 떨어진다고 했지만 반짝 스타가 아닌, 평생 음악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싱어게인이 할 일이다. 뒤에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하면 싱어게인을 더 많이 보고 시청률이 더 나오게 할 지 고민하겠다.”

세번이혼 이상아 “딸 한살때 아빠 만들어주려 했지만”



탤런트 이상아(50)가 세 번 결혼 후 이혼한 이유를 털어냈다. 이상아는 5일 방송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책받침 스타였던 나에게 남은 재산은 오직 딸 뿐”이라며 “활동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패한 게 결혼이다.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두 번째 재혼하며 딸을 갖게 됐다. 가장 큰 재산 같다. 유일한 핏줄이고 예쁜 모습

MBN ‘속풀이쇼 동치미’ 출연

보면서 다른 힘든 것을 잊고 웃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혼을 좀 많이 했다. 내가 일찍 결혼하게 된 이유는 아역에서 성인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뭔가 필요했다”며 “당시 유행어가 ‘미시족’(결혼했지만 외모로는 미혼여성처럼 보이는 이들)이었다. 미시족이면 성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하하라, 이미연이 결혼하면서 아역 이미지를 벗었다. 잘 맞아 떨어져서 급하게 결혼을 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결혼을 선택했고 ‘인연이 아니구나’라고 헤어진 뒤 일이 안 생겼다”고 귀띔했다.

이상아는 “재혼했는데 남자 보는 눈이 좋지 않았다. 딸은 얻었지만 한 가정을 꾸리는 인연은 안 됐다.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정말 승승장구 했을텐데 ‘잘못 생각했구나’ 싶었다”며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남편을 만났다. 나이 먹기 전에 빨리 아빠를 만들어 주는 게 아이에게 상처가 크지 않을 것 같았다. 아이가 한 살도 되기 전에 세 번째 남편과 재혼했다. 13년 만에 또 파경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결혼하고 나서 일과 거리가 멀어졌다. 은퇴 아닌 은퇴를 하고 싶었다. 모든 사람

들이 날 지원했으면 했다”며 “은퇴를 멋지게 선언하긴 우스운 상황이었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나 혼자 연극 무대하는 것 같았다. 내가 인테리어하고 직원을 캐스팅하고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다. 방송국은 전혀 생각 안 하고 행복하게 일 했다”고 돌아봤다.

하지만 이상아는 방송에 자주 소환됐다며 “랭킹 프로그램 톱에 올라가 있더라. 이혼 이야기, 하이틴 스타 랭킹에 올라가고 녹색창에 검색하다 보니까 기사가 자주 나왔다. 은퇴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언급해 떠난 사람이 안 됐다. 내 마음은 은퇴하고 싶었는데 여론이나 팬들은 나를 지우지 않고 있었다. 어쩔 수 없는 ‘방송쟁이인가 보다’ 싶어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이젠 물이 안 들어온다”고 토로했다.

이상아는 1997년 개그맨 김한석(50)과 결혼 후 1년 만에 헤어졌다.

재혼한 사업가 전모씨와도 1년만인 2001년 이혼했다. 2002년 10세 연상 사업가 윤모씨와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지만 11년 만인 2013년 갈라섰다.

두 번째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 윤서진(22)은 팔로워 4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다.

원어스, 美 폭스 TV ‘굿데이 뉴욕’ 출연



미주 투어 중인 그룹 원어스(ONEUS)가 현지에서 주목 받고 있다.

5일 소속사 RBW에 따르면, 원어스는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폭스(FOX) TV ‘굿데이 뉴욕(Good Day NY)’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원어스는 그룹 소개를 비롯

해 미주 투어를 위해 뉴욕에 방문한 소감 등을 이야기했다. RBW는 “원어스 여섯 멤버는 MC와 능숙하게 영어로 대화하며 현지 팬들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귀띔했다.

이날 ‘굿데이 뉴욕’ 측은 원어스의 미주 투어와 여섯 번째 미니앨범 ‘블루 문(BLOOD MOON)’에 관한 소식을 전했다.

원어스는 이밖에도 미국 패션 매거진 ‘틴 보그(Teen Vogue)’, 대중문화 웹진 ‘팝 매터스(Pop Matters)’, 휴스턴 신문사 ‘휴스턴 크로니클(Houston Chronicle)’ 등 해외 매체들과 잇따라 인터뷰했다.

앞서 원어스는 지난달 12일 뉴욕을 시작으로 현지 투어 ‘2022 원어스 투어 - 블루 문’에 돌입했다. 델러스, 휴스턴, 피닉스, 베벌리힐스에서 투어를 이어간다.

호불호 갈린 ‘더베트맨’ 40만명 돌파…닷새째 박스오피스 1위

‘브루스 웨인’(로버트 패틴슨) 탐정으로 활약, 추리극

영화 ‘더 베트맨’(감독 매트 리브스)이 누적 관객수 40만명을 돌파했다. 6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 더 베트맨은 10만7492명을 모았다. 지난달 1일 개봉 후 호불호가 갈렸지만, 5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누적 관객수는 41만4628명이다. 베트맨 ‘브루스 웨인’(로버트 패틴슨)이 탐정으로 활약, 추리극 재미를 살렸다. 하지만 혹평이 잇따랐다. 탤런트 김지훈

은 지난 2일 인스타그램에 “포스터만 멋있었다”며 혹평을 퍼부었다. “리닝타임 3시간에 다다를수록 견디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버텼다. 마지막 장면까지 깔끔하게 지루하다”면서 “베트맨 영화가 가진 모든 매력을 버리는 도전은 과감했으나 무모한 걸로 결론이 날 듯하다. 웬지 시리즈가 여기서 완결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듣다)”고 했다.

2위는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주술회전 0’(감독 박성후)이다. 1만6941명을 동원, 누



적관객수는 35만4040명으로 집계됐다. 3위 톰 홀랜드 주연 ‘엔자티드’(감독 루벤 플레셔)는 1만6313명이 봤다. 누적 관객수는 67만2595명이다.

손예진, 드라마배우 브랜드평판 1위

배우 손예진이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차지했다.

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2월 드라마 배우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 손예진, 2위 김태리, 3위 남주혁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송강, 박민영, 연우진, 지현우, 차서원, 이세희, 전미도, 한선화, 이선빈, 정은지, 김남길, 수에, 김지현, 박하나, 김범, 강예원, 이민영, 손나은, 정지훈, 임시완, 김경남, 이무생, 유승호, 최현욱, 안은진, 유이, 보나(김지연)가 순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결과는 지난달 6일부터 한 달 간 방영된 드라마에 출연중인 배우 50명의 브랜드 빅데이터 7952만5986개를 분석해 나왔다.

구장환 소장은 “드라마 ‘서른 아홉’에 출연 중인 손예진이 1위에 뽑혔다”며 “빅데이터 링크 분석에서 ‘결혼하다, 발표하다, 뜨겁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현빈, 전미도, 김지현’이 나왔다”고 했다.

한편 브랜드평판은 추출된 빅데이터를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량, 미디어량, 소통량, 커뮤니티량으로 나눠 분석해 나온다. 이를 통해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의 출처와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 이슈에 대한 커뮤니티 확산, 콘텐츠에 대한 반응과 인기도를 측정할 수 있다.